

광주학생독립운동, 하와이 재외동포 결집 '기폭제'

전남대 김재기 교수 연구팀 美 신한민보 등 분석 결과 하와이 한인협회·한인자치회 결성... "후속연구 지속"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하와이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김재기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1930년 3월13일자 보도와 하와이 한인협회 공보 5호 등을 찾아 분석한 결과가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조사한 신한민보 보도에는 1930년 1월13일 하와이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 29명이 이를 지지하며,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취지의 '하와이 한인협회' 발기인 회의를 가졌는데, 발기 취지문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3·1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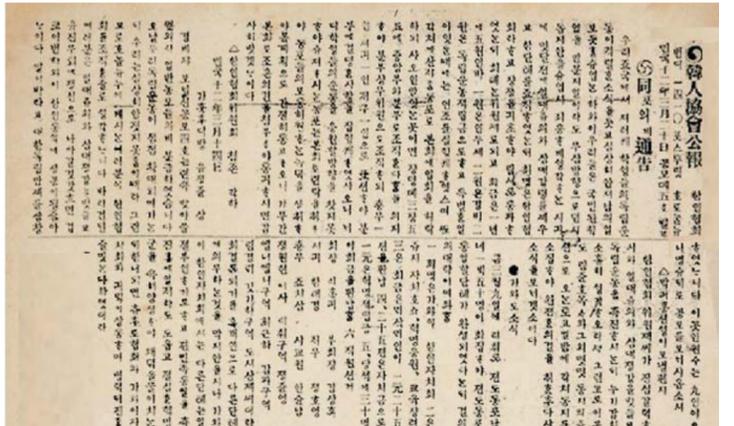
운동 이후 제2차 독립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취지에 공감하는 한인이 급격히 늘면서 2월에는 참여자가 80여명에 달했다. 하와이 한인협회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대한독립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임시정부에 집중 ▲최후의 1인까지 분투 ▲상해 한국독립단으로 통일 등을 정강으로 내세웠다. 또 연회비를 5원으로 하되 이중 2원을 독립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

또 하와이 한인협회 공보 제5호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한인협회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최북단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150여명이 '한인자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신한민보와 하와이 한인협회 공보.



(전남대 제공)

연구팀은 당시 최소 500여명의 한인들이 산재한 섬 지역 농장과 단체 등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한인협회 공보자료(1-4호) 추가 발굴과 참여 회원 및 서훈 미추서자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재기 교수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

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대한인동지회, 조선독립단, 하와이 교민단, 중립적 단체 등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독립운동마저 침체된 상황이었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면 이를 지지하기 위한 한인사회가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성균관 유생복 입고 두건 두르고

전남독서인문학교, 전통 세책례 졸업식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최근 초·중·고 졸업생 171명과 학부모 및 지도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남독서인문학교 졸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졸업식은 속수례 형태로 치러졌던 입학식에 이어 전통 '세책례'를 접목시켜 실시했다. 책을 찢어서 날려 멀리서 유쾌한 '책거리'라고도 불리는 세책례는 졸업생들이 성균관 유생복과

두건을 착용하고 제자로서 예를 갖춰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며, 교원은 심의를 입고 스승으로서 글자를 내리는 단자수신(短資修身)을 통해 제자의 학문적 성장을 기원한다.

전남독서인문학교 중학교 과정의 정예 학생은 "우리 모두 하나의 원 안에서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일인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2024 전남독서인문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통 세책례 졸업식에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절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제공)

됐으며, 협력과 조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이 기자

수학·물리학 강연부터 연극·히든싱어5까지...

GIST, '과학문화주간' 운영

오는 15일까지 각종 행사 다채 "지역 소통 과학문화 확산 노력"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4일 "오는 15일까지 2주간 '2024 GIST 과학문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GIST 과학문화주간'에서는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창업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 GIST 구성원은 물론 시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 주에는 5일까지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수학·물리학 강연 시리즈가 진행된다.

이어 오는 6일 오후 7시에는 교내 출판사 GIST PRESS가 지난 2019년 출간한 희곡 '51번 사진 (저: 애너 지글러(Anna Ziegler), 역: 이시연 GIST 기초교육부 교수)'를 극화한 연극 51번 사진이 행정동 1층 CT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또 7-8일 이틀간 운영되는 과학강연 프로그램 '과학독톡'에서는 사전 신청한 전남지역 중학교(무안 해제중, 여수 여도중, 화순 북면중) 학생들이 하대청 GIST 기초교육부 교수, 이재영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송영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온라인 강연에 참여한다.

12일에는 GIST 최고의 가왕(歌王)을 가리는 히든싱어5가 행정동 CT아트홀에서 열리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교수가 GIST 오픈관을 찾아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사회공헌 이카데미 강연을 펼친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매년 과학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그 결실로 서울에 설립 31주년을 맞는 GIST는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교육연수원, 전국 첫 'AI 스마트 강의실' 개소

참여 중심 실습형 PBL·미디어 체험형 등 2곳 구성

광주교육연수원이 전국 교육연수원 중 처음으로 'AI 스마트 강의실'을 운영한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이정은 시교육감, 김나운·조석호 시의원, 학교·지역사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스마트 강의실' 개소식을 가졌다.

'미래로 가는 AI교육'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AI 스마트 강의실은 미래형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AI·디지털 관련 연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AI 스마트 강의실은 참여 중심의 실습형 PBL 강의실 '아이다올실'과 공간 구조가 변형되는 미디어 체험형 강의실 '연리지실' 등 2개 실로 구성됐으며, 강의실 입구에는 미래교육 홍보를 위

한 복합 공간이 조성됐다.

광주 교직원들은 미래교실과 미래 공간을 체험하고, AI·디지털 기반 참여형 연수를 통해 광주 미래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경희 광주교육연수원장은 "스마트 강의실은 광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수의 장으로서 학생·학부모·교



원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